9-2 (9-1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셤 범위 X 오예!!!!

2차 대전 이후의 추상 – 앵포르멜 미술(L’Art Informel)

2차 대전 - 대단히 비극적.. 세계대전으로서는 가장 최근의 전쟁. 미국은 직접적 전쟁터 x. 유럽은 직접적 전쟁터. 비참함. 전쟁의 끝나고 나서 미술 중심은 미국 뉴욕으로 넘어옴. 수백년동안 미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프랑스가, 유럽이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사회 복구가 이루어지며 미술도 마찬가지로 재건됨.

미국과 완전히 유사한 추상미술이 싹트게 됨. ->앵포르멜 미술(파리에서 일어남)

그동안의 고전주의적이고 큐비즘 기하학적 추상으로부터 벗어남. 굉장히 새로운 정신성의 복구. 미국하고 비슷. 본능, 자유, 자발성, 우연성 등을 존중하는 미술운동 일어나게 됨. 과학기술 문명이 결국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 밖에 되지 않았다. 이성 합리적인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일어남. 오히려 원시적 우연적 자발적 본능적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방향의 미술 운동 일어남.

이론가 – 미쉘 타피에 ->앵포르멜 ((비정형(정형이 없다.))

용어 – 다른 미술, 타시즘, 앵포르멜 등으로 불리다가 앵포르멜로 보편적으로 지칭.

1. 비정형의 구상미술 – 뒤뷔페, 포트리에, 코브라 그룹 등 회화의 주제를 인간과 실제대상에서 찾았다. 마티에르로 즉흥성, 직관, 본능을 드러냄

2. 서정적 추상미술(미국과 비슷)

----------------------------------------

앵포르멜 미술의 특징 – 큐비즘, 기하학적 추상으로부터의 이탈, 혁식전인 새로운 미술 새로운 정신성의 추구

1) 장 뒤뷔페 <행복한 시골> / <파리의 정경> 2) 장 뒤뷔페 <탁자 위의 개> / <예민한 코를 가진 소> : 즐거운 삶 // 시골. 자전거를 타고.. 농장, 밭이 있음. 원근법이 하나도 적용 안됨. 명암법 원근법 (르네상스 때부터 개발되어온 회화의 캐논, 규범 같은 것). 그러한 것을 무너뜨리자. 전쟁을 하고 나니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반영하는 그림이 나타나게 됨.

본능, 자유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형식->다른 미술로 불려지다가 앵포르웰 미술에 들어감

어린이, 정신병자 등의 그림에서 순수성, 정열, 광기 발견하게 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이성을 거부하는 듯한 작품 보임. 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 물질을 강조하면서 그 물성을 통해서 정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

3) 장 포트리에 <인질>, <예쁜 소녀> 4) 장 포트리에 <작은 인질>, <부드러운 여인> // 프랑스의 ‘인질’이라는 단어 – 2차 대전 당시의 독일군의 포로가 된, 인질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가 담김. 본인이 점령당했을 때 그렸던, 포로들이 고문당할 때 비명을 지르는 … 물질에 담아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새로운 미술로 등장. 분노나 절규 등 감정을 왜곡된 형태로 보여줌.

서정적 추상회화(abstraction lyrique) : 1947년 드루앵 화랑에서 타피에와 마티외가 기획한 전시회는 앵포르멜 회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연다.

조르주 마티외 – 앵포르멜이라는 용어 대신에 ‘서정적 추상’이라 명명. 다른 용어로는 타시즘

서정적 추상회화의 특징 - 신체제스처를 통해 본능의 자발성을 표현하였다.

* 동양미술과 동양서체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 서정적이고 자유로운 선의 흐름은 프랑스 회화의 장식적 경향으로부터 나왔다.
* 그린다는 행위를 통한 창조의 자유를 회화의 주요한 주제로 받아들인다.

5) 조르주 마티외 <회화>, <도처에 있는 카페 왕가의 사람> // 즉흥적 자발적 본능적

잭슨 폴락과의 차이점 ? -> 마티외 전통에서 좀 덜 벗어남. 잭슨은 방바닥에 펼쳐놓고 뛰어다니며 뿌림. 우연성의 측면에서 잭슨폴락이 우위. 마티외는 캔버스와 물감으로 그림. 마티외는 그림이라는 것은 기호이고 문자라고 생각.

6) 한스 아르퉁 <채색된 얼룩>, <T. 1935-1> // 물감이 얼룩처럼 번지는 효과 연구. 동양의 붓을 들고 하는.. 동양 서체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빛!!! 서정적이고 감미로움. 빛에 대한 느낌이 한폭의 풍경을 보는 듯한.. 감미로운 감수성, 시성을 보여줌

8) 피에르 술라주 <회화>, <회화> // 검정에 대한 특별한 감정 느낌. 검정은 빛을 담는 용기(그릇) – 라인하르트도 같은 말!

역광을 받은 듯한 형태 같은 느낌도 든다. 동양서체에 대한 관심. 또한 기념비적이다. 고대 문물의 기념비성을 보여준다. 자신의 회화가 빛을 가득 담고 있는 현재이다. 라고 얘기.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문명에 회의. 본능 자발성 자유를 드러내는 미술운동 일어났다. 🡪앵포르멜 . 미국의 추상표현주의하고 유사한 조형성 보여줌. BUT 너무나 거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함 (잭슨폴락 등에 비해). 굉장히 유사하지만 서정적이고 시적이다. 🡪서정적 추상회화

이러한 미술은 한국 화단에도 영향.

한국추상미술

9) 김환기 <론도> 1938, <창> 1940 // 기하학적 추상이기 때문에 깔끔. 유럽에서 있었던 몬드리안 등의 기하학적 추상을 한국 화단에서 받아들임.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화가들이 프랑스로 유학. 앵포르멜 받아들임. 미국으로도 유학감.

14) 박서보 <회화 NO.1> 1957 // 잭슨폴락에 영향 받음. 한국에 추상표현주의 방식이 1957-58부터 유행.

16) 박서보 <원형질 NO.1-62> 1962 //물질이 강조. 정적으로 보임. 거친 붓터치가 사라짐. 유럽식의 앵포르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됨.(물질 강조하는 식)

17) 박서보 <원형질> // 세포의, 생명체의 최초의 움직임. 살려고 움직임.. 시대적인 상황에서 한국전쟁 끝나고 혼돈의 상황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희망을 얘기함.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한 희망 얘기함. 60년대는 한국 화단의 추상미술의 시대(박정희 젊었고, 기성세대 밀어내려는 움직임. 화단에서도 마찬가지.. 나라에서 앵포르멜 미술 밀어줌. 국제 미술과 보폭을 같이함). 유럽의 형상에서도 영향 받음.

23) 장성순 <0의 지대> 1961 // 한국화단 – 형식에 있어서 미국의 추상주의도 받아들였으나, 마음이 유럽쪽에 가있었다. 프랑스를 많이 받아들이고 프랑스의 실존주의에 대한 관심. 인간은 본질이 아니라 실존이다. 실존으로 존재한다. 실존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 실존주의 –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26) 서승원 <동시성 68-7> 기하학적 추상 다시 유행

1970-80년대 한국 모노크롬화

서구 모더니즘 미술을 따르면서 동양의 사상(불교, 노자, 장자 구도) 받아들임. 조형적인 면에서는 유사한게 많다. 바넷뉴먼 등과 유사. 한국사람들은 무채색 선호. 서구사람들은 원색 많이 사용.